

이 자료는 「그린피스」를 특집으로 다룬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1993-1994 Winter PP 56-57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린피스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은 생산한 자료이다.



〈덴마크 TV-2가 방영한 「그린피스」 명예총재 「맥타가트」의 모습〉

덴마크 TV, 「그린피스」의 내막을 들추다

폴 라스뭇센(Paul Rasmussen)

무지개 깃발을 단 고속 고무보트로 발틱해의 미 해군 원자력선을 추격하거나 남극해안에서 조업하는 일본 捕鯨船을 拿捕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극적인 언론 플레이로 잘 알려진 Greenpeace는 오로지 환경 정화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에서 아낌없이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수백만의 獻金者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또다른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어두운 측면은 1993년 11월 14일 덴마크 전국 방송망인 TV-2를 통해 방송된, Greenpeace의 정치적, 재정적 행태에 관한 1시간 짜리 다큐멘터

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지개 속의 인물(The Man in the Rainbow)’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Nordisk Film이 아이슬랜드의 영상물 제작자인 Magnus Gundmundsson의 특별 자문을 받아 만든 것이다. 이는 Greenpeace가 어떻게 소규모 환경행동집단에서 연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는 국제적인 기업조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수천만 달러의 비밀자금이 사사로운 기금과 극소수 개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은행 비밀구좌에 숨겨져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전 Greenpeace의

장인 David McTaggart는 이들 중에서도 엄청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목되는 인물이다.

다큐멘터리는 또한 商業的 捕鯨 금지 지지국들로 國際捕鯨委員會(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를 구성하기 위해 Greenpeace가 다수 국가의 관리들을 매수했음도 폭로하고 있다. IWC는 그 비과학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마지막으로 극렬한 성격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든 환경 테러리스트 조직인 ‘Earth First!’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도 밝혔다.

고래를 살릴 것인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1993년 봄 아이슬랜드가 IWC 탈퇴를 결정한 몇달 후 노르웨이가 그 비과학성을 들어 1982년 이래 IWC가 요구하고 있는 商業的 捕鯨 금지 규범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Greenpeace 등 환경그룹들은 이 2개 약소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들의 악마구리 같은 선동에 넘어가 노르웨이가 제한적인 商業的 捕鯨을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고 대자연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믿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이에 따라 그들의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에 대해 엄중한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덴마크 TV-2 다큐멘터리는 상업적 포경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Greenpeace가 설립한 비밀 운영위원회 및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등에서 일했던 Francisco Palacio 박사가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Greenpeace의 목적은 오로지 IWC로 하여금 공해상의 捕鯨을 전면 금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Palacio 박사는 Greenpeace의 의뢰로 카리브해의 여러 조그만 나

라들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그 목적은 이들을 IWC에 가입시킴으로써 IWC가 商業的 捕鯨 유예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표결에서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가 운용한 자금은 약 5백만 달러였다.

매수된 어느 나라도 捕鯨 자체는 관심이 없었으며, 관리들 중 捕鯨 禁止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 놀랄 사실은 IWC의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런던에서 온 Greenpeace International 직원들이 이들 나라를 대신해서 참석했다는 것이다. Greenpeace는 이들 관리들과 그 가족들의 엄청난 휴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IWC 회원국을 17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리는데 성공했고, 이리하여 그들의 捕鯨 禁止 의도는 관철되었다.

IWC의 과학자문국은 현재 商業的 捕鯨을 유예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eenpeace가 조종하는 허수아비 회원국들이 작용함으로써 IWC는 이의 유예를 계속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Greenpeace International의 새 首長인 Uta Bellion을 인터뷰 했는데, 그녀는 정색을 하고 Greenpeace가 평화적인 비정부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비폭력 원칙에 공감하지 않는 어떤 단체와도 결코 협력하

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환경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유착

다큐멘터리는 이어 북캘리포니아 시위에 등장한 플래카드를 방영했는데, 거기에서 Greenpeace의 이름은 악명높은 환경테러리스트 조직인 'Earth First!'의 바로 옆에 등장했다. Earth First!의 회장 Mike Roselle도 이 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 응해 Greenpeace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우호적인 유대를 자랑삼아 늘어놓았다.

Earth First!에 침투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 벌목산업계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도 TV에 출연하여 북캘리포니아 Earth First! 맹원의 적어도 절반이 동시에 Greenpeace의 정회원이기도 하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Greenpeace가 Earth First!에 자금을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문건도 제시했다.

이 사실이 담긴 카메라 필름을 Bellion에게 제시하자 그녀는 말을 더듬으면서 앞뒤가 맞지않게 이 모든 사실을 잡아떼었다. 간신히 냉정을 되찾은 그녀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짐짓 단호하게 말했다. "모종의 조치"란 Earth First!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의미하는가고 묻자 그녀는 다만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말꼬리를

다른데로 돌렸다.

비밀구조 문제

Greenpeace 네덜란드지부의 전 경리부장인 Frans Kotte가 공개한 사실이 다큐멘터리가 밝힌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암스텔담에 주재하면서 Greenpeace International의 경리부와 밀접한 관계 아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Greenpeace가 몇몇 나라에서 모금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Greenpeace 모금운동으로 조성된 돈에서 빼들린 수천만 달러가 예금된 은행 비밀구조가 있음을 폭로했다. 그는 또한 Rainbow Warrior 사건 후 Greenpeace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2천만 달러의 돈이 Greenpeace의 공언과는 달리 선박을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암스텔담에 있는 Robobank의 비밀구조에 들어갔다는 폭탄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이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Ecological Challenge Fund'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단체의 것으로 되어 있다. TV-2가 Robobank에 조회한 결과가 기금의 실제 예금주는 Greenpeace International의 전 의장인 David McTaggart로 밝혀졌다.

McTaggart는 12년 동안 Greenpeace International의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의장직에서

은퇴했으나, 아직 종신 명예회원으로 남아 있다. 그는 왜 거금 2천만 달러의 Greenpeace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 그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이보다 더 많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Greenpeace가 몇개의 은행 비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그는 그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Greenpeace의 현 의장 Bellion에게 제기했을 때 그녀는 "그를 신임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또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대두된다. "그것은 좋은 생각인가?"

David McTaggart에 따라 다니는 어두운 그림자

다큐멘터리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David McTaggart의 과거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것은 McTaggart가 그가 가진 3개의 캐나다 베드민턴 선수권을 이용하여 체육계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초 그는 북캘리포니아로 이주, 아주 어린 소녀와 결혼한 후 아내와 장모를 구워삶아 상당한 규모의 돈을 새로 건설한 스키 휴양지에 투자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지역 사업가들을 현혹하여 콜로라도 스키 휴양지 계획에 거금을 투자하게 했다.

그 직후 북캘리포니아 본사는 도산

하고 계획된 콜로라도 스키 휴양지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투자된 돈의 전액은 McTaggart와 함께 증발되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장모도, 그의 동업자들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몇년 후 그는 콜로라도 법정에서 있는 증권 사기사건 궤석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의 종적은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1970년대 초 뉴질랜드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남태평양에서 실시한 프랑스 핵실험에 항의하기 위해 선박을 수배하고 있던 Greenpeace의 창설자 Bennett Metcalfe가 게재한 신문광고를 보고 나타난 것이다. 선박을 소유하고 있던 McTaggart가 Metcalfe를 면담한 후 그의 선박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출항 예정일 전날 간소한 송별연에 참석하기 위해 선원들이 모였으나 McTaggart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대신 McTaggart의 변호사가 Metcalfe를 찾아와 McTaggart가 스위스제 시계를 뉴질랜드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000달러의 보석금만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Metcalfe가 보석금을 내고 그를 석방시켜 선박은 출항할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McTaggart가 Greenpeace를 인수하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음을 이 항해 중에 깨달은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수년 후 그는 Greenpeace 조직을 통제 인수했으며, 그후 이를 그 자신의

帝國으로 운영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Greenpeace의 창설자 Benett Metcalfe는 “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리포터가 “그 괴물이 누구인가?” 하고 묻자 그는 “그것은 David McTaggart”라고 대답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당국에 의한 추가 조사가 요구되는 여러가지 중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현금이 은행 비밀구좌로 들어갈 경우에 이 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많은 나라들은 단체들의 활동 성격을

검토하여 자선, 또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TV에 의해서 밝혀진 증거들의 충격적인 성격은 미국에서만 연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대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여타의 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다른 중대한 문제는 IWC가 자행한 투표조작이다. 그 결정 과정에 흑막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같은 결정사항은 여러 나라들을 구속할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고래포획을 재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Greenpeace International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입각하여 노르웨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이 또한 재앙이 될 것

이다.

Paul Rasmussen은 Schiller 연구소 덴마크 지부 회장이며,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의 코펜하겐 주재 통신원으로서 그의 글 “Ole Remer and the Discovery of the speed of Light”은 ‘21세기’지 1993년 봄호 40쪽에 게재되었음. 다큐멘터리 “The Man in the Rainbow”의 녹화 필름은 덴마크의 TV-2에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음.

전화번호 : (45) 65 91-91-91.
 FAX번호 : (45) 65 91-33-22.
 (출처 :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1993-1994 Winter)

1994年 3月中 原子力發電實績

발전소	노형 (MWe)	발전량(MWh)		이용률(%)		가동률(%)	
		당월	누계(94.1부터)	당월	누계(94.1부터)	당월	누계(94.1부터)
고리 1호기	PWR 587	433,779	1,249,263	99.32	98.53	100.00	99.62
고리 2호기	PWR 650	488,527	1,422,945	100.00	100.00	100.00	100.00
고리 3호기	PWR 950	119,291	1,489,927	16.88	72.61	20.75	72.70
고리 4호기	PWR 950	727,395	2,086,528	100.00	100.00	100.00	99.45
월성 1호기	PHWR 678.7	76,152	462,555	15.08	31.55	12.91	31.46
영광 1호기	PWR 950	737,742	2,129,363	100.00	100.00	100.00	100.00
영광 2호기	PWR 950	731,222	2,124,664	100.00	100.00	100.00	100.00
울진 1호기	PWR 950	552,092	635,127	78.11	30.95	80.15	32.10
울진 2호기	PWR 950	742,721	2,156,924	100.00	100.00	100.00	100.00
합 계		4,608,921	13,757,296	81.34	83.63	79.31	81.70

(註)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94.3.7 시작, 진행중/ 월성 1호기 94.1.24~3.26 원료/ 울진 1호기 : 94.1.5~3.7 完了